

현행 오장-오행 배속은 사상 논쟁의 산물인가 -『사기·창공열전』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¹
張美正¹ · 金基旺¹ *

Did the current correspondence scheme between Five Viscera and Five Phases arise from social and humane hegemony conflict?
-some clues from 「Changgongyeoljeon(倉公列傳)」 in 『Sagi(史記)』

Jang Mi-jung¹ · Kim Kiwang¹ *

¹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Korean Medicine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is based on Five Phase theory that link Liver, Heart, Spleen, Lung, Kidney to Wood, Fire, Earth, Metal, Water respectively. Recently, some argue that this correspondence scheme had been established by political or socio-humane issues in early Eastern Han dynasty. But according to our analysis on Changgongyeoljeon(in Sagi), it has been revealed that this scheme had their own history from early Western Han dynasty. So we may conclude that people with medical profession had preserved the current correspondence scheme in Five Phase theory regardless trends of literature and politics in Western and Eastern Han dynasty.

Key Words : Ohaeng, Five Viscera, Visceral Manifestation Theory, correspondence scheme in Visceral Manifestation Theory, Sagi, Changgongyeoljeon

I. 序論

주지하다시피 한의학은 간, 심, 비, 폐, 신의 오장에 각각 목, 화, 토, 금, 수의 오행 속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오장과 오행의 연결은 과연 무엇을 근거로 정해진 것일까? 이는 한학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에게 실로 중요한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한의학의 많은 가정들과 가환가지로 오장에 대한 오행 배속(配屬) 역시 현행의 형식이 만들어진 배경과 중간 과정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지만 한의학이 완성되기 전의 몇몇 문헌에는 현행의 오장-오행 배속과 다른 형태의 연결이 발견되는데, 미력하게나마 이는 우리의 의문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한대(漢代) 이전에는 오장과 오행의 연결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형식이 존재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예

* 교신저자 : 김기왕.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E-mail: kimgiwang@hanmail.net Tel: 051-510-8466
접수일(2010년 4월 25일), 수정일(2010년 5월 15일),
게재확정일(2010년 5월 19일)

가 여러 문헌에서 확인되는 ‘비-목, 폐-화, 심-토, 간-금, 신-수’의 연결로서 현행의 ‘간-목, 심-화, 비-토, 폐-금, 신-수’의 관계와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후한의 허신(許慎)이 『오경이의(五經異義)』에서 지적한 바¹⁾에 따라 전자를 오장의 오행 배속에 대한 고문설(古文說), 후자를 금문설(今文說)이라 부르고 있다. 본래 ‘금문(今文)’이란 진시황의 분서갱유(焚書坑儒)로 소실된 중요한 책들을 후대의 학자가 기억 및 구전에 의지해 복원한 것을 말하며, ‘고문(古文)’은 이후 공자의 옛 집 벽에서 발견되었다고 알려진 분서갱유 이전의 책들을 말한다. 전함과 후함에 걸쳐 이 두 종류의 문헌을 둘러싸고 이른바 금문파와 고문파 사이에 여러 차례 논쟁이 있었다. 한의학의 주요 경전인 『황제내경』에서는 금문설에 따른 오장-오행 배속만을 수록하고 있고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연결 형식은 전혀 바뀌지 않은 채 한의학의 기본적 가정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행 오장-오행 배속 관계가 의학적인 이유가 아닌 한나라의 왕조 정체성 변경(토에서 화로)과 금문파의 폐권 성취라는 인문·사회적 사건의 영향으로 확정되었다는 주장이 있다.²⁾³⁾⁴⁾⁵⁾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현행의 오장-오행 배속은 인체 현상의 실체를 반영한다거나 적어도 최적의 설명 체계라 할 수 없고 다분히 임의적인 관계 설정의 결과라 생각할 수 있다. 본 논고에서는 『사기·창공열전』을 중심으로 전국시대와 전한, 후한 시대의 주요 서적을 통해 이러한 주장의 진위를 고찰하고 오장-오행 배속 관계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 1) 今文『尙書』歐陽說: 肝, 木也; 心, 火也; 脾, 土也; 肺, 金也; 腎, 水也。古『尙書』說: 脾, 木也; 肺, 火也; 心, 土也; 肝, 金也; 腎, 水也。(당나라 孔穎達의 『禮記正義』에 등장하는 『五經異義』 인용문)
- 2) 龍白堅 著, 白貞義, 崔一帆 譯. 黃帝內經概論. 서울. 논장. 1988. p.115.
- 3) 田樹仁. 兩漢改制與心屬火說的演變. 中國醫藥學報. 1989. 4(8). pp.52-55.
- 4) 余自漢, 連啓明, 李積光, 吳傳華, 程自勉, 陳元宏, 劉曉蘭, 趙國祥 著, 金基旺, 印昌植, 申丞鎬 譯. 황제내경의 기원. 서울. 一社. 2003. p.177.
- 5) 田樹仁, 馬潤姝. 從劉向父子五臟配五行觀談『黃帝內經』. 1998. 18(3). pp.138-139.

II. 本論

1. 오장-오행 배속에 대한 종래의 논의

『황제내경』에는 간, 심, 비, 폐, 신 오장 각각에 목, 화, 토, 금, 수의 오행 속성을 부여하고 있고 이러한 대응 형식이 근 2천 년 동안 변함없이 전승되었기 때문에 이와 다른 대응 형식이 가능하리라는 주장은 오랜 기간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조선 후기의 의학자 정동유(鄭東愈, 1744-1808)는 그의 저서 『주영편(晝永編, 1804)』에서,

『소문』에서는 오장을 오행에 나누어 배당하여 심을 화로, 폐를 금으로, 비를 토로, 간을 목으로, 신을 수로 삼았다. 이는 고금 의가들 사이에서 전혀 바뀌지 않은 정론이다. 그러므로 병을 진찰할 때는 오행의 상생 상극을 관찰하여 진단을 하고 약성을 논할 때도 오행의 보사를 관찰하여 이를 활용한다. 만약 오행의 이치를 포기할 수 있다면 종래의 의학 이론을 단번에 폐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양웅(楊雄)의 『태현·현수』에서는 오행 상생 상극의 이치를 한참 설명하고 나서, 오장에 이르러서는 목의 장기를 간으로, 화의 장기를 폐로, 수의 장기를 신으로, 토의 장기를 심으로 하고 있다. 만약 이 설을 기준으로 상생 상극을 운용한다면 『소문』에서 보해야 할 것을 사하게 되고 『소문』에서 왼쪽으로 해야 할 것을 오른쪽으로 하게 되어 치료를 그르치고 사람을 상하게 될 것이 뻔하다. 양웅은 본래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당시 의가들이 보편적으로 활용하던 학설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도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렇다면 『소문』과 『태현』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택해야 할까? 『한서·예문지』에 『소문』이 실려 있지 않으니 『소문』이 세상에 나온 것이 양웅보다 뒤진다는 말인가?

서양 사람들은 늘, 중국의학이 오로지 오행만을 말하기 때문에 질병을 치료할 수 없다고 한다. 만약 그렇다면 『소문』과 『태현』의 설을 모두 폐기해야 하는 것일까? 진실로 이해할 수 없오다.⁶⁾

라고 하여 양웅(楊雄, 기원전 53~기원후 18)의 오장-오행 배속과 『소문』의 배속에 차이가 있으며 이를 한의학의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였다. 논설의 끝 부분에 오행에 관한 서양 사람들의 논평을 소개한 것을 보면 그가 오행설 자체에 대해 강한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정동유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황제내경』이 양웅보다 뒤에 지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⁷⁾ 근래에는, 특히 1973년 이른바 마왕퇴 의서(馬王堆醫書)가 출토된 이후에는, 『황제내경』 저작 시기를 전한 이후로 추정하는 예가 많아졌다. 그러한 조류 속에 장부의 오행 배속 역시 일정한 역사적 변천을 거쳐 뒤늦게 현행의 형식으로 확정되었다는 설이 대두되었다.

일례로 전수인(田樹仁)은 현행의 오장-오행 배속(간-목, 심-화, 비-토, 폐-금, 신-수)이 전한 시대까지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후한 초 왕조의 오행적 정체성을 토에서 화로 바꾼 데 힘입어 현행의 배속 형식이 출현하였다고 설명하였다.⁸⁾ 또한 후한 전의 문헌으로서 현행의 오장-오행 배속을 보이고 있는 『자화자』와 『회남자』(회남자·추형훈)에 대해서도 각각 후세의 위작이라거나(『자화자』의 경우), 문자 기술의 오류(『회남자』의 경우)라고 설명하였다.⁹⁾ 나아가 그

는 현행 『황제내경』, 즉 『소문』과 『영추』는 『한서·예문지』에 수록된 『황제내경』이 아니며¹⁰⁾ 지금의 『황제내경』은 전국시대나 전한시대의 작품이 아닌 후한시대의 작품이라 하였다.¹¹⁾

이러한 주장은 오장의 오행 배속이 의학적으로 필연적인 어떤 이유에서가 아니라 인문학의 사조 변동 내지는 왕조의 정치적 선택에 따라 원래의 형태에서 뒤바뀐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이는 한의학의 이론적 기반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사람은 성공할 수 없는 설명으로 반박하기도 하였으며¹²⁾ 어떤 사람은 절충적 설명¹³⁾¹⁴⁾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어떤 사람은 의학의 내재적 발전 과정이 사회적 조류와 딱 맞아떨어졌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¹⁵⁾.

오장-오행 배속이 의학적인 필연성을 가진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의학 이론과 인문학의 이론

6) 『素門』以五臟分屬五行 一心爲火, 肺爲金, 脾爲土, 肝爲木, 腎爲水。此即古今醫家不易之論也。故診病也, 察五行生克而爲候; 論藥性也, 亦視五行補瀉而爲用。若謂此理可捨, 則從古醫道可一掃而廢也。然楊子『太玄·玄數』盛言五行生克之理, 而及論五臟, 則曰木臟脾, 金臟肝, 火臟肺, 水臟腎, 土臟心。使以此說相爲生克則『素門』之當補者瀉之, 『素問』之當左者右之, 其誤治而傷人必矣。子雲本非妄言者, 且當時醫門恒用之說, 亦必無不知之理, 而其言如此者何也? 然則『素問』與『太玄』必有一誤, 抑將何所取捨乎? 『漢書·藝文志』不載『素問』, 豈『素問』之出後於子雲歟? 泰西人每言中國醫術專言五行, 故不能療疾, 然則兩說都可廢與? 誠不可曉也。(『晝永編·卷二』)

7) 앞의 인용문을 보면, 정동유는 『소문』이 양웅 이후에 나왔을 가능성을 단지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언급했을 뿐, 신뢰할 만한 가설로 생각하지는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한서·예문지』의 『황제내경』과 『소문』이 서로 다른 책일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시대를 앞선 견해였다고 할 수 있다.

8) 田樹仁, 馬潤姍. 從劉向父子五臟配五行觀談『黃帝內經』. 1998. 18(3). pp.138-139.

9) 田樹仁. 兩漢改制與心屬火說的演變. 中國醫藥學報. 1989. 4(8). pp.52-55.

10) 이는 『황제내경의 기원』(원서 『內經靈素考』, 1992) 저자들도 동일하게 주장한 바였다.

11) 田樹仁, 王建中. 『靈樞』、『素問』并非『黃帝內經』: 兼論『靈樞』、『素問』成書于東漢. 中華醫史雜誌. 1991. 21(3). pp.145-149.

12) 예를 들어 장효霞(張效霞) 등은 오장의 오행 배속이 뒤바뀐 것을 '사회의식형태(社會意識形態)' 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 설명하는 것은 논리학의 동일율(同一律)을 위배한 것이며, '오행을 오장에 대응시킨 것은 인위적 형식으로서, 오장 사이의 진정한 연결과 제약 관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오행학설을 진위 판정이 불가능한 위치에 놓아두는 것이며 논리학의 배중율(排中律)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張效霞, 王振國. 五臟配五行原理溯源. 江西中醫學院學報. 2008. 20(3). p.5). 현대 인문학자들의 현학적 태도를 신랄히 비판한 소칼(Alan David Sokal, 1955-)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설명은 논리학 술어를 가지고 저지른 '지적사기(fashionable nonsense)'에 다름 아니다.

13) 예를 들어 장기성(張其成)은 의학이론과 유학(儒學) 이론을 분리하면서도 한의학의 이론 체계 안에서 이 둘을 확연히 가릴 수 없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였다.(張其成. 五行-五臟的配屬過程. 南京中醫藥大學學報. 2000. (1). p.18.)

14) 이옥청(李玉淸)은 오장의 오행 배속에 전한·후한 사이에 변동이 있었으며, 이것이 화덕(火德)을 국시로 삼은 것과 관련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오행 배속이 바뀌게 된 데에는 의학적 경험이 중요한 요소였음을 동시에 강조하였다.(李玉淸. 從五臟五行配屬關係的多樣性看醫學發展的軌跡. 南京中醫藥大學學報. 2004. 5(4). pp.199-201.)

15) 邢玉瑞. 五行配五臟研究. 山西中醫學院學報. 2004. 5(4). pp.1-4.

내지 문화적 행태 사이에 일정한 간격이 있음을 주장한 경우가 많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른바 고문설에 따른 오장-오행 배속은 의학자들에게 활용된 것이 아니며 의학자들은 시종일관 금문설에 따른 오장-오행 배속(현행의 배속)을 이용하였다고 주장한 예가 많다. 예를 들어 장우창(張祐彰)은 고문설이 제사에 관련된 『예기·월령』 류의 자료에만 나타나고 의학 관련 서적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¹⁶⁾.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¹⁷⁾ 고문설의 유행에도 불구하고 의학자들은 금문설을 견지했다고 주장하려면 고문설이 유포되고 있던 시기, 즉 전한 이전에 금문설을 따른 의학 서적이 존재하였음을 먼저 증명하여야 한다.

현재, 전한시대에 금문설에 따른 오장-오행 배속이 존재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회남자·추형훈(淮南子·墜形訓)』 뿐이다. 일부 반론¹⁸⁾에도 불구하고 『회남자·추형훈』은 당시 의가들 사이에 금문설에 따른 오장-오행 배속이 전승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¹⁹⁾되지만, 금문설이 전한 시기의가들 사이에 널리 활용되었다고 주장하려면 기타의 문헌 근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가노우 요시미즈(加納喜光)와 장우

창은 전한 시대의 『사기·창공열전』을 금문설에 따른 오장-오행 배속의 예로 제시하고 있다²⁰⁾²¹⁾²²⁾. 그러나 그 근거에 대해서는 「창공열전」의 15번째 증례(제나라 승상 솨인의 노비에 대한 진단 사례)에서 “비(脾)를 토(土)로 명시”하였기 때문에 금문설을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고 간략히 설명하였을 뿐이다.

『회남자·추형훈』과 달리 『사기·창공열전』은 명시적으로 오장-오행 배속을 설명하고 있는 문헌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사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창공열전」이 고문설에 입각한 오장-오행 배속을 보여준다는 설이 여러 차례 제시되었으며, 「창공열전」이 금문설을 지지한다는 연구들보다 더 구체적인 논증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오미만(吳彌漫) 등은 「창공열전」의 24번째 증례(成開方の 증례)에 등장하는 “신반폐(腎反肺)”라는 표현이 고문설에 근거한 상극관계를 보여주며 21번째 증례(破石의 증례)에서 기장을 폐와 연관시킨 것이 고문설을 반영하는 것이라 주장하였고²³⁾²⁴⁾, 이어 백건평(白建平)도 그의 주장에 찬동하였다²⁵⁾. 장기성(張其成)은 의가의 학설인 금문설과 유가의 학설인 고문설은 본래 무관한 것임을 설명하면서도 추상적 오행 개념의 형성에 따라 양자간의 상호 영향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인정하였고, 「창공열전」의 증례 가운데 고문설을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는 증례도 있음을 논하였다²⁶⁾.

이제 본 논고에서는 후한 이전의 오장-오행 배속

16) 張祐彰. 今古文尙書 五行配藏 論爭에 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9. 22(1). p.63.

17) 예를 들어 『음양요질법(陰陽療疾法)』이라는, 제목으로 보아 의학 서적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헌에 고문설에 따른 오장-오행 배속이 등장한다. 이는 『주례·추관·대사구(周禮·秋官·大司寇)』의 가공언(賈公彥) 주석에 나타난 『음양요질법』 인용문에서 확인된다.

18) 田樹仁. 兩漢改制與心屬火說的演變. 中國醫藥學報. 1989. 4(8). pp.53-54. : 전수인은 『회남자·추형훈』의 오장-오행 배속을 설명한 부분이, 이를 제거할 경우 문맥이 잘 이어지며(특정 지역 주민의 신체 특징을 설명하다가 장부의 일반적 생리를 설명하는 부분이 갑작스레 등장하고 다시 그 주민의 신체 특징을 설명하는 문장이 이어짐), 『회남자』의 다른 부분과 내용상 상충하므로(그는 『회남자』가 편집자의 정리를 거쳐 일관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후대에 삽입된 부분이라고 하였다.

19) 『회남자·추형훈』의 오장 관련 설명에는 오장과 신체 조직의 연결이나 이른바 개구(開竅) 부위와 오장의 연결 등, 의학적 관심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 의가들의 견해를 인용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고, 전수인이 주장한 문맥의 문제 및 타 편·장간의 일관성 문제는 당시에 금문설이 부재(不在)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20) 加納喜光 著. 김교빈, 이현구, 박석준, 황희경, 조남호 譯. 중국의학과 철학. 서울. 여강출판사. 1991. pp.194-195.

21) 張祐彰. 今古文尙書 五行配藏 論爭에 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9. 22(1). p.63.

22) 張其成. 五行-五臟의 配屬過程. 南京中醫藥大學學報. 2000. (1). p.17. : 왕옥천(王玉川)의 『운기탐비(運氣探秘, 1993)』란 문헌에서도 「창공열전」이 금문설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다. 장기성(張其成)의 다음 논문에서 재인용.

23) 吳彌漫. 從『史記』“倉公傳”考證『黃帝內經』의 成書年代和作者. 廣州中醫藥大學學報. 1996. 13(2). p.49.

24) 曾高峰, 吳彌漫. 從『史記』倉公傳考察漢初診法水平. 遼寧中醫雜誌. 2006. 33(3). p.288.

25) 白建平. 『黃帝內經』藏象學說淵源考證. 廣州中醫藥大學석사학위 논문. 2001.

26) 張其成. 五行-五臟의 配屬過程. 南京中醫藥大學學報. 2000. (1). p.18.

형식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창공열전」의 과연 고문설에 기초하고 있는지, 금문설에 기초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오장-오행 배속 관계의 변천

『황제내경』에 등장하는 현행 오장-오행 배속 관계가 어떻게 확정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춘추 전국시대에서 후한대에 이르는 시기의 주요 고서적에 나타난 오장-오행 배속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시기의 문헌으로 오행설을 다룬 문헌은 적지 않지만 오장의 오행 배당을 언급한 책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관자(管子)』, 『여씨춘추(呂氏春秋)』, 『회남자(淮南子)』, 『태현(太玄)』, 『백호통의(白虎通義)』 등이다.²⁷⁾ 이 밖에 위서(緯書)이지만 전후한 교체기의 서적으로 볼 수 있는²⁸⁾ 『춘추위·원명포(春秋緯·元命苞)』에도 오장의 오행 속성이 보인다. 이들 문헌에 나타난 오장과 오행의 대응 관계를 정리해 보면 표 1

에 나타난 바와 같은 3 종류의 형식을 발견할 수 있다. 『관자』의 대응 형식(제 1 계열)은 위의 논의에서 설명하지 않은 형식이며 『여씨춘추』, 『태현』 등에 등장하는 대응 형식(제 2 계열)은 위에서 설명한 고문설, 『백호통의』 등에 등장하는 현행의 대응 형식(제 3 계열)은 위에서 설명한 금문설에 해당한다.

표에 등장하는 문헌 가운데 『관자』는 춘추시대 관중(管仲, 기원전 723-645)의 언설을 모은 것이라 하지만 실제 저작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오행학설과 관련하여 오장을 언급하고 있는 「수지(水地)」편의 경우에는 비록 여러 가지 주장이 존재하고 있지만 대체로 전국시대 중기의 저작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근래에 대만의 황쇠(黃鈞)는 「수지」편의 저작 시기를 기원전 376-355년 사이로 압축하였다.²⁹⁾ 『예기』에서는 「월령(月令)」에서 금문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여씨춘추』에도 수록되어 있다.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으나 이를 감안하면 『여씨춘추』의 저자인 여불위 생존 시기 이전에 「월령」의

계열	오행과 이에 대응하는 장부					출전
	목	화	토	금	수	
제 1 계열	비	간	심	신	폐	『관자』
제 2 계열	비	폐	심	간	신	『예기』, 『여씨춘추』, 『회남자시칙훈』, 『태현』
제 3 계열	간	심	비 (회남자·추형훈은 위)	폐	신	『회남자·추형훈』, 『춘추위·원명포』, 『백호통의』, 『황제내경』

표 1. 오장-오행 배속 관계의 변천

27) 余自漢, 連啓明, 李積光, 吳傳華, 程自勉, 陳元宏, 劉曉蘭, 趙國祥 著. 金基旺, 印昌植, 申丞鎬 譯. 황제내경의 기원. 서울. 一中社. 2003. pp.165-196.

28) 徐棟梁, 曹勝高. 『春秋緯』成書考. 濟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9. 19(4). p.53. : 서동량(徐棟梁) 등에 의하면 『춘추위·원명포』의 저작 시기는 기원후 5년에서 9년 사이라고 한다.

원형이 만들어졌으리라 생각된다. 위에서 언급한 나머지 서적들의 성립 시기는 비교적 분명하다. 즉,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여씨춘추』는 기원전 293년에, 『회남자』는 기원전 139년에(중양 정부 제출

29) 黃鈞. 淺論『管子·水地』篇成文的時限. 管子研究. 濟南. 山東人民出版社. 1987. pp.42-51.

시점), 『태현』은 기원전 2년에, 『춘추위·원명포』는 기원후 5-9년에, 『백호통의』는 기원후 85년에 완성되었다.

다섯 가지 문헌의 저작 시기를 고려하면 대체로 『관자』에 등장하는 오장의 오행 배속이 가장 이른 시기에 나타났고, 이른바 고문설에 해당하는 오행 배속이 뒤이어 나타났으며, 현행의 오행 배속, 즉 금문설이 가장 나중에 나타났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간적 선후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관자』 설 → 고문설 → 금문설의 순서로 오장의 오행 속성이 변천되었다는 인상을 갖게 하는데, 이는 오장-오행 배속에 관한 정확한 이해라 할 수 없다. 아래에서 「창공열전」의 오행학설을 통해 고문설과 금문설을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파악해야 하는지 논하기로 한다.

3. 「창공열전」의 오장-오행 대응

「창공열전」은 명시적으로 오장-오행 배속 관계를 표현하지 않았지만 대략 세 군데에서 오장-오행 배속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이 3 개의 조문이 지금까지 「창공열전」이 금문설에 속하는지, 고문설에 속하는지를 논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 이 3 개 조문에 무엇이 문제가 되며 그로부터 어떠한 결론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증례 15의 해석

「창공열전」에 수록된 15번째 증례는 당시 제나라 승상의 사인(舍人, 개인 집사로 생각됨)의 노비였던 무명의 환자에 대한 진단 사례다. 오장의 오행 속성에 관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제가 그 노비의 병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였습니다. 그는 비장의 기운이 오장을 두루 침범하여 얼굴의 상응 부위를 해치면서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장이 손상된 안색이었습니다. 즉 멀리서 볼 때는 죽음이 느껴지는 황색이었고, 가

까이서 보니 죽은 ‘청(靑)’의 ‘자(姦)’와 같았습니다. 그를 진단한 여러 의사들이 그것을 모르고 기생충 질환이라 여겼고 비장이 손상되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병이 봄이 되어 죽을 병임을 알았던 것은 위에 대응하는 부위가 누렇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황색은 토(土)의 기운인데 토는 목(木)을 이기지 못하므로 봄이 되자 그는 사망한 것입니다.³⁰⁾

이 단락은 「창공열전」이 현행의 오장-오행 배속에 따르고 있음을 보인 예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비장과 위를 토에 대응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미만(吳彌漫) 등은 전혀 다른 해석을 제시하였다³¹⁾³²⁾. 그들은 창공이 고문설에 따라 비장을 목에 대응시켰다고 간주하였다. 그들이 이러한 주장을 제기한 근거는 원문에서 환자의 안색이 죽은 ‘청’의 ‘자’[死靑之姦]와 같았다는 표현을 푸른 안색, 즉 목(木)의 기운이 드러난 안색을 묘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원문에서 명시적으로 설명한 위와 토의 연관만을 인정하고 비와 토의 연관만 인정하지 않았다. 원문에서 토가 목을 이기지 못하므로 봄이 되어 환자가 사망하였다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그들은 이것이 봄과 비장의 상극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봄과 위의 상극 관계(曾高峰·吳彌漫, 2006), 또는 목에 배속된 비장과 토에 배속된 위의 상극관계(吳彌漫, 1996)를 말한 것이라 하였다. 현행의 오장-오행 배속에 근거한 종래의 해석과 고문설을 기준으로 한 오미만 등의 해석을 비교하면 그림 1과 같이 그 차이를 요약할 수 있다.

과연 그들의 주장은 옳은 것일까? 이 문제에 답을 하려면 원문의 ‘사청지자(死靑之姦)’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³³⁾.

30) 所以知奴病者，脾氣周乘五藏，傷部而交，故傷脾之色也。一望之殺然黃，察之如死靑之姦。衆醫不知，以爲大蟲，不知傷脾。

所以至春死病者，胃氣黃，黃者土氣也，土不勝木，故至春死。
31) 吳彌漫。從『史記』“倉公傳”考證『黃帝內經』的成書年代和作者。廣州中醫藥大學學報。1996。13(2)。p.49。

32) 曾高峰，吳彌漫。從『史記』倉公傳考察漢初診法水平。遼寧中醫雜誌。2006。33(3)。p.288。

33) 오미만 등은 ‘사청지자(死靑之姦)’의 현대한어 번역을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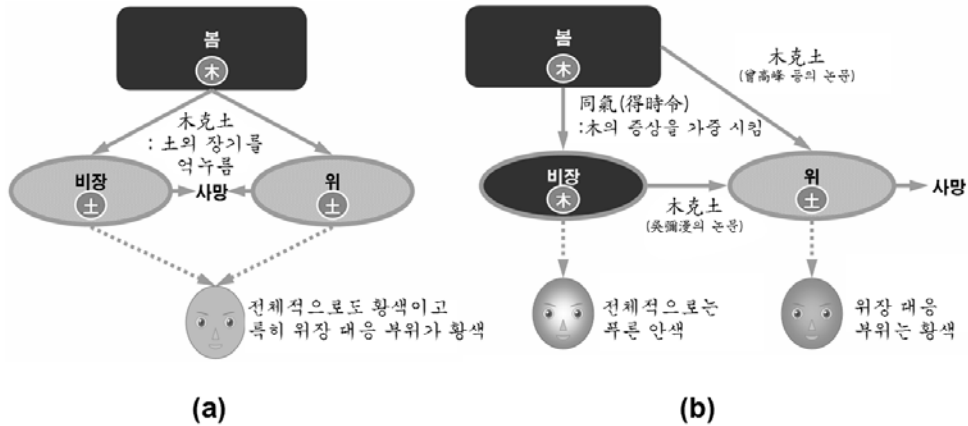


그림 1. 「창공열전」 증례 15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a)과 오미만 등의 해석(b).

우선 ‘자(茲)’는 ‘여기서’, ‘이에’ 정도의 뜻으로 사용되는 허사인데 여기서는 명사로 사용되어 그 뜻을 짐작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자 사전이라 할 수 있는 『이아(爾雅)』의 「석기(釋器)」에 “자리(깔개)를 일러 자라고 한다[蓐，謂之茲]”는 표현이 나타나고 이에 대한 곽박(郭璞, 276-324)의 주석에서 “자라는 것은 자리를 말한다[茲者，蓐席也]”라고 다시 설명하고 있어 자(茲)라는 것이 깔개나 방석, 돛자리 등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원래 청은 ‘푸르다’는 뜻의 형용사이지만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명사로서 청(靑)은 청색(색상 자체) 또는 청색 염료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없음이 분명하며, 형용사가 명사로 전용된 1차적 형태, 즉 ‘푸른 것’이란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된다. ‘푸른 것’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결국 ‘풀[草]’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청(死靑)’이란 죽은 풀이란 뜻이고 ‘사청지자(死靑之茲)’란 시든 풀로 만든 깔개 (또는 방석, 돛자리 등)를 말한다고 볼 수 있으며, 안색이

‘사청지자’와 같았다는 표현은 얼굴 색이 푸르게 보였다는 뜻이 아니라 마른 풀잎으로 짠 깔개와 같이 누렇게 보였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풀로 짠 돛자리[茲]를 푸른 것으로 묘사하는 예가 『황제내경』³⁴⁾이나 『맥경』³⁵⁾에 보이지만 여기서는 ‘죽은 [死]’ 것이라는 수사를 일부러 덧붙인 것으로 보아 건조된 풀잎의 누런 색깔을 묘사한 것이라 생각된다.

‘사청지자’와 같았다는 표현이 누런 얼굴 색을 묘사한 것이라면 위의 증례에 대한 그간의 일반적인 해석, 즉 비장과 위를 모두 토(土)로 보고 봄[春]과 비위 사이의 상극 관계로 그의 사망을 설명하였다고 보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 게다가 오미만 등의 설명에 비해 설명의 구조가 더 단순하다. 오미만 등의 설명에서는 계절과 장기의 관계가 일관적으로 설명되지 못하며(비장에 대해서는 탈오행적 설명-同氣相求-, 위에 대해서는 오행 상생상극에 입각한 설명), 고문설에 따라 비장을 목(木)에 대응시켰다면 위를 토(土)에 연결한 당시의 배경학설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남는다.

3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39. 「五藏生成」 “靑如草茲者，死。”

35)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84. p.235. 「扁鵲佗察聲色要訣」 “病人面黃目靑者，不死. 靑如草滋者，死.” (草滋를 풀의 즙으로 해석하는 예도 있으나 『설문해자』와 『설문해자주』 및 앞의 「오장생성」편 인용문을 참고할 때 풀로 만든 깔개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시하지 않았다. 이는 「창공열전」이 금문설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인용문의 표현을 번역하지 않고 논지를 전개하는 것은 한자문화권의 문헌 연구에서 아직도 답습되고 있는 고질적 병폐라 할 수 있다.

오장-오행 대응의 형식	출전	오행과 이에 대응하는 곡식					
		목	화	토	금	수	
고문설	『여씨춘추』	麥	菽	稷	麻	黍	
	『회남자·시척훈』	麥	菽	稷	麻	黍	
금문설	『회남자·추형훈』	麥	稻	禾	黍	菽	
	『황제내경·영추』	「오음오미」	麻	麥	稷	黍	大豆
		「오미」	麻	麥	秬米	黃黍*	大豆
	『황제내경·소문』	「장기법시론」	粳米	小豆	大豆	麥	黃黍*
		「금궤진언론」	麥	黍	稷	稻	豆
「오상정대론」		麻	麥	稷	稻	豆	

표 2. 한대 이전 주요 문헌에 등장하는 곡물과 오행의 대응.

* 황서: 황서란 곡식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진(晉)의 최표(崔豹)는 『고금주·초목(古今注·草木)』에서 기장을 황서라 부르기도 한다고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고에서는 「창공열전」의 증례 15가 현행의 오장-오행 배속, 즉 금문설을 따르고 있다고 본다.

2) 증례 21의 해석

「창공열전」에 수록된 21번째 증례는 제나라의 중랑(中郎)이었던 파석(破石)이란 사람에 대한 진단 사례다. 창공은 그가 10일 후에 죽을 것이라 예측하였는데 그는 11일 후에 사망하였다. 예측이 약간 빗나간 것에 대해 창공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가 예측된 시기에 꼭 맞지 않게 죽은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제 스승님 말씀에 “환자가 곡식을 편히 먹으면 예측된 사망 시기를 넘기고 곡식을 편히 먹지 못하면 예정된 시기에 못 미쳐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기장을 좋아하였는데 기장은 폐를 주관하므로 예정한 시기를 넘겼던 것입니다.³⁶⁾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창공이 기장을 폐와 연관

시켰다는 것이다. 오미만(吳彌漫)은, 금문설을 따르고 있는 『황제내경』에서 기장을 폐가 아닌 심장에 대응시켰으며, 기장의 색깔이 붉은 색, 즉 화(火)의 색깔이므로 창공이 폐를 화(火)에 대응시킨 것이고, 결론적으로 창공은 고문설을 따르고 있었다고 해석하였다³⁷⁾. 과연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황제내경』에서도 기장을 폐에 대응시킨 예가 확인되며 몇 가지 유관 문헌을 함께 살펴볼 때 오히려 기장을 폐에 대응시킨 것이 금문설 계열 문헌에서 많이 보이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표 2는 한대 이전의 몇 가지 문헌에서 오행과 곡식의 대응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요약한 것이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금문설 계열의 문헌인 『회남자·추형훈』과 『영추·오음오미』에서 기장을 금(金)·폐(肺)에 대응시킨 예가 있으며 오미만이 지적한 기장과 화(火)의 대응은 단지 『소문·금궤진언론』에 보이는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하다.

요컨대 「창공열전」의 증례 21에 등장하는 “기장이 폐를 주관한다[黍主肺]”는 표현은 「창공열전」이 고문설 계열 문헌임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36) 司馬遷 著, 史記. 『漢文大系』本,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2. p.143 : “所以不中期死者 師言曰 病者安穀即過期 不安穀則不及期. 其人嗜黍, 黍主肺, 故過期.”

37) 吳彌漫. 從『史記』“倉公傳”考證『黃帝內經』的成書年代和作者. 廣州中醫藥大學學報. 1996. 13(2). p.49.

오히려 금문설 계열, 즉 현행의 오장-오행 배속을 따르는 문헌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3) 증례 24의 해석

『창공열전』에 수록된 24번째 증례는 성개방(成開方)이란 사람의 진단 사례다. 오장의 오행 배속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가 성개방의 병을 알 수 있었던 까닭은 그를 진단했을 때, 『맥법·기해』에서 “오장의 기가 서로 반(反)한 경우는 죽는다”고 했는데 맥진을 해 보니 신장이 폐에 반(反)한 맥이 나타났고 이 경우 원칙상 3년 후에 죽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³⁸⁾

여기서 신장이 폐에 반(反)한 맥이 나타났다[得腎反肺]는 진술은 「창공열전」이 고문설을 따랐음을 주장하는 강력한 논거였다. 오미만 등³⁹⁾뿐만 아니라 백건평(白建平)⁴¹⁾, 하위국(賀衛國)⁴²⁾ 등도 이 문장을 근거로 「창공열전」에 오장-오행 배속에 관한 고문설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원문의 “반(反)”이라는 표현이 의미상 오행의 상극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신장과 폐는 고문설에서만 상극관계(水克火)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신반폐(腎反肺)”라는 문장을 오행상 자(子)가 모(母)를 거꾸로 공격한 특별한 사례로 해석하기도 하였으나⁴³⁾ 그보다는 「창공열전」의 장부 오행 속성이 고문설을 따르고 있다는 근래의 설명이 더 간단하고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과연 이 문장이 실제로 고문설의 흔적이라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앞의 인용문에 등장한 「기해(奇咳)」라는 문헌의 진단법, 즉 “기해술(奇咳術)”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김기왕(金基旺)의 선행 연구⁴⁴⁾에 상세한 설명이 등장하나, 여기서는 고문설과 금문설에 관련된 내용만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황제내경』에는 「기해」가 「기항(奇恒)」이란 이름으로 등장하는데⁴⁵⁾, 「기항」을 인용한 『황제내경』의 다섯 편 가운데 하나인 「옥기진장론(玉機眞藏論)」에는 풍사(風邪)에 의한 외감병이 어떤 전변 과정을 거치는지 설명하는 내용이 등장한다⁴⁶⁾. 이를 요약하면 피부를 통해 풍사가 침입한 후 폐로부터 오행 상극에 따라 폐 → 간 → 비 → 신 → 심의 순서로 관련 증상이 나타나고 최종적으로 심의 단계에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10일 후에 죽는다는 것이다. 각각의 단계에 대한 진단적 명칭과 그 순서를 요약하면 그림 2의 (a)와 같다. 외감병 전변에 관한 이러한 지식은 맥진을 통해 예후를 예측하는 데도 사용되었다고 생각되는데⁴⁷⁾ 예를 들어 「창공열전」의 증례 7(瀦滿如의 진단 사례)에서는,

제가 심만여의 병을 알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제가 그의 맥(왼손의 맥)을 짚었을 때 맥이 가라앉아 있었으며 가늘고 힘이 없었는데 감

38) 司馬遷 著, 史記, 『漢文大系』本,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2, p.145: “所以知成開方病者, 診之, 其『脈法·奇咳』言曰 藏氣相反者, 死。切之, 得腎反肺, 法曰三歲死也。”
 39) 吳彌漫, 從『史記』“倉公傳”考證『黃帝內經』的成書年代和作者, 廣州中醫藥大學學報, 1996, 13(2), p.47.
 40) 曾高峰, 吳彌漫, 從『史記』倉公傳考察漢初診法水平, 遼寧中醫雜誌, 2006, 33(3), p.288.
 41) 白建平, 『黃帝內經』藏象學說淵源考證, 廣州中醫藥大學 2001년 석사학위 논문, pp.24-25.
 42) 賀衛國, 談談『素問』和『靈樞』的成書, 國醫論壇, 2006, 21(1), p.37.
 43) 苟香壽, 歷代名醫傳選注-倉公傳, 雲南中醫學院學報, 1979, (3), p.42.

44) 金基旺, 고대 진단법 ‘기해술(奇咳術)’의 복원, 大韓韓醫診斷學會誌, 2009, 13(2), pp.1-13.
 45) 龍白堅 著, 白真義, 崔一帆 譯, 黃帝內經概論, 서울, 논장, 1988, p.125. : 청대의 고관광(顧觀光)이 『소문교감기(素問校勘記)』에서 「기해」와 「기항」이 동일한 문헌이란 의견을 제시하였고 현대의 연구자들도 대개 이 견해에 따르고 있다. 예를 들어 『황제내경개론』이 그러하다.
 4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74, “今風寒客於人, 使人毫毛畢直, 皮膚閉而爲熱, 當是之時, 可汗而發也。或痺不仁腫痛, 當是之時, 可湯熨及火灸刺而去之。弗治, 病入於肺, 名曰肺痺, 發欬上氣。弗治, 肺即傳而行之肝, 病名曰肝痺, 一名曰厥, 脇痛出食, 當是之時, 可按若刺耳。弗治, 肝傳之脾, 病名曰脾風, 發痺, 腹中熱, 煩心, 出黃, 當此之時, 可按可藥可浴。弗治, 脾傳之腎, 病名曰疝瘕, 少腹冤熱而痛, 出白, 一名曰蠱, 當此之時, 可按可藥。弗治, 腎傳之心, 病筋脈相引而急, 病名曰癰, 當是之時, 可灸可藥。弗治, 滿十日, 法當死。”
 47) 「옥기진장론」의 설명을 맥진에 응용한 것이 바로 ‘기해술’이란 진단법의 실질적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김기왕의 선행 연구를 참고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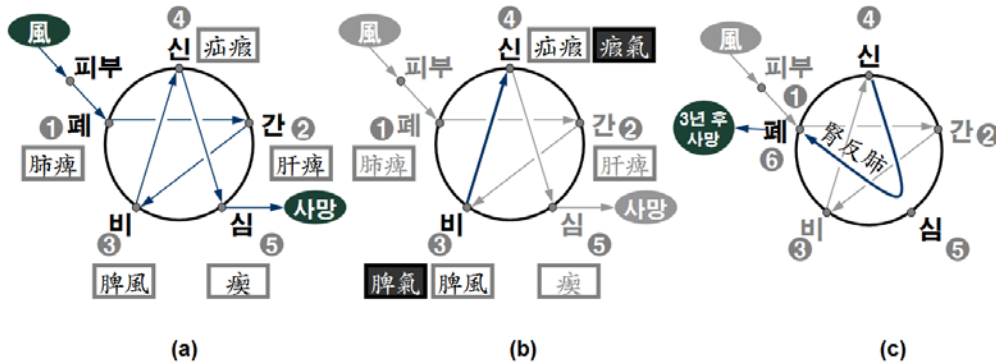


그림 2. 『소문·옥기진장론』의 외감병 전변 모델과 「창공열전」의 맥진에서 이를 활용한 예. (a) 「옥기진장론」의 외감병 전변 모델. 장부 명칭 옆의 병명은 원문에 등장하는 표현 그대로임. (b) 「창공열전」 증례 7에서 「옥기진장론」 모델을 활용한 예. 창공은 왼손에서 “비기(脾氣)”를, 오른손에서 “가기(瘦氣)”를 확인(검은 바탕에 흰 글자)하고서 “순서에 맞추어 상극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하였다. (c) 「창공열전」 증례 24에서 「옥기진장론」 모델을 활용한 예. 창공은 “신반폐(腎反肺)”의 맥을 확인하고서 3년 후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옥기진장론」에서도 신장의 병사(病邪)가 폐로 되돌아갈 경우 3년 후에 사망한다고 하였다.

작스레 불쑥불쑥 튀어오르곤 하였습니니다. 이것은 비기(脾氣)입니다. 오른쪽의 맥구(촌구)에서는 기가 이르는 것이 팽팽하고 가늘어 가기(瘦氣)가 보였습니다. 차례에 맞추어 상승(相乘=相克) 관계를 형성하였으므로 30일 후에 죽은 것입니다.⁴⁸⁾

이와 같은 표현이 등장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왼손에서 “비기”를, 오른손에서 “가기”를 확인했을 뿐인데 이를 통해서 어떻게 “차례에 맞추어 상승 관계를 형성[以次相乘]”했는지 알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바로, 「옥기진장론」의 설명에 따라 비기(脾氣)는 비장의 이상(「옥기진장론」: “脾風”)이고 가기(瘦氣)는 신장의 이상(「옥기진장론」: “疝瘦”)이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왼손의 맥상과 오른손의 맥상이 차례에 맞추어 상극 관계(脾克腎, 즉 土克水)를 형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기해술이란 진단법의 전형적인 적용례라 생각되는데, 「창공열전」의 24번째 증례에도 「옥기진장론」의 모델을 「기해」란

이름으로 인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성개방의 사례는 「옥기진장론」의 상기 인용문 바로 뒤에 등장하는,

신장이 사기(邪氣)를 받아 심장에 전달하였는데 심장이 다시 전변 경로를 되돌려 사기를 폐에 보내 오한 발열이 발생하면 원칙상 3년 만에 죽습니다.⁴⁹⁾

라는 설명에 부합한다. 창공이 “신반폐(腎反肺)”의 맥을 확인했다는 것은 왼손에서 신장의 맥을, 오른손에서 폐의 맥을 관찰하였다는 것이고 이것이 「옥기진장론」의(결과적으로 「기해」의) 위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3년 후 죽는다고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라 생각된다(그림 2의 (c)). 따라서 “득신반폐(得腎反肺)”란 표현은 “신장이 폐를 극(克)한” 현상을 확인했다는 것이 아니라 “신장이 폐로 사기를 되돌린” 현상을 확인하였다는 뜻이라 할 수 있다. 창공은 신장과 폐 사이에 상극 관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 아니며 「기해」의 진단법을 충실하게 응용하고 있었

48) 司馬遷 著. 史記. 『漢文大系』本.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2. p.133 : “所以知瀰滿如病者, 臣意切其脈, 深小弱, 其卒然合也. 是脾氣也. 右脈口氣至緊小, 見瘦氣也. 以次相乘, 故三十日死.”

4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74. “腎因傳之心, 心即復反傳而行之肺, 發寒熱, 法當三歲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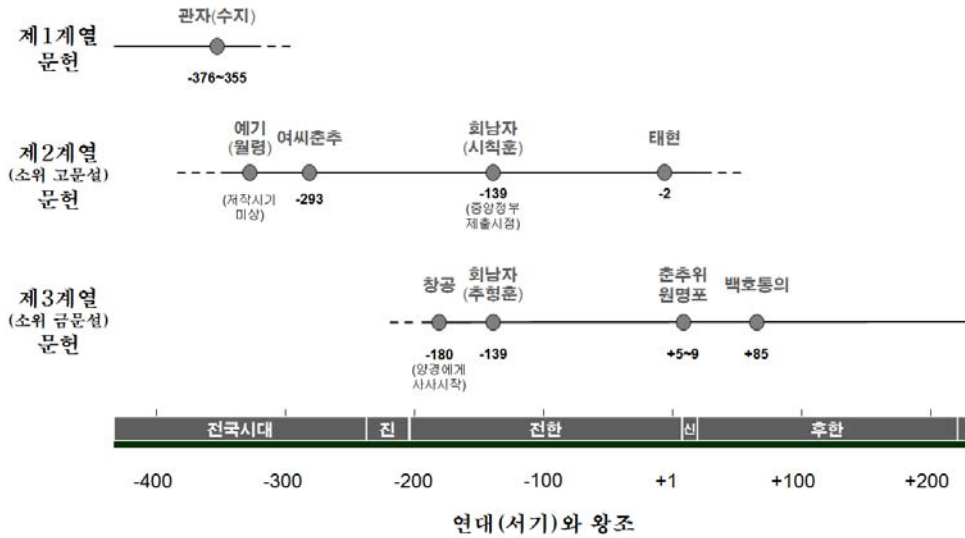


그림 3. 전국~후한 시기의 오장-오행 배속 유형의 변천

을 뿐이다. 또한 「옥기진장론」에서 확인되듯이 「기해」의 진단법, 즉 기해술(奇咳術)은 철저히 현행의 오장-오행 대응에 기초하고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창공열전」의 3개 사례를 종합하면 「창공열전」은 확실히 현행의 오장-오행 배속, 즉 금문설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오장-오행 배속의 흐름

본 논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창공열전」과 『회남자·추형훈』이 현행 오행 배속을 따르고 있음을 고려하면 현행의 오행 배속은 적어도 전한 초기까지 그 존재가 소급된다. 표 1에 소개한 오장-오행 배속의 3종 형식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그림 3과 같다.

이러한 흐름을 살펴보면 이른바 오장의 오행 배속에 대한 고문설과 금문설이 적어도 200년 가까운 시간 공존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오장-오행 배속이 의학 외적인 이유로 변화되었다는 근래의 주장에 대해 반대의 논거가 된다. 금문-고문 논쟁과 관계없이 당시 의학교 내부에서는 상당 기간 동안 현행의 오장-오행 배속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

라서 현행의 오장-오장 배속이 『황제내경』에 전적으로 수용된 것을 사상 논쟁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흐름이 오장의 오행 배속에 어떤 필연성이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조류에도 불구하고 의학교에서 오랫동안 금문설을 유지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장-오행 배속이 의학교에서 처음 정립되었을 때 어떤 형태였으며 왜 그러한 연관을 설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진전된 연구가 필요하다.

III. 결론

본 논고에서는 오장의 오행 속성이 현재의 형태로 정립된 과정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근래에 대두된, 오장의 오행 속성이 의학 외적인 요인, 즉 후한 초기 왕조의 오행적 정체성이 바뀌고 이른바 금문설이 득세함에 따라 바뀌었다는 주장이 옳지 않음을 밝혔다. 『사기·창공열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장의 오행 속성을 추정할 수 있는 3개 조문이 모두 금문설에 부합하며, 따라서 후한 왕조가 시작되기 전 200년 가까이 의가들 사이에는 현행의 오장-오행 대응 관계가 통용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사상적 논

쟁이었던 이른바 금고문(今古文) 논쟁에 무관하게 의학계 내부에서는 오장에 대해 현행의 오행 속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결론은 『음양료질법』과 같은 약간의 반대 사례와, 최초로 오장의 오행 속성 부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과제를 남긴다. 향후 진전된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參考文獻

<논문>

1. 苟香濤. 歷代名醫傳選注-倉公傳. 雲南中醫學院學報. 1979. (3). pp.23-44.
2. 金基旺. 고대 진단법 '기해술(奇咳術)'의 복원.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9. 13(2). pp.1-13.
3. 白建平. 『黃帝內經』藏象學說淵源考證. 廣州中醫藥大學 2001년 석사학위 논문.
4. 徐棟梁, 曹勝高. 『春秋緯』成書考. 濟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9. 19(4). pp.53-57.
5. 吳彌漫. 從『史記』“倉公傳”考證『黃帝內經』的成書年代和作者. 廣州中醫藥大學學報. 1996. 13(2). p.53. pp.46-49.
6. 李玉清. 從五臟五行配屬關係的多樣性看醫學發展的軌跡. 南京中醫藥大學學報. 2004. 5(4). pp.199-201.
7. 張其成. 五行-五臟的配屬過程. 南京中醫藥大學學報. 2000. (1). pp.16-18.
8. 張祐彰. 今·古文尙書 五行配藏 論爭에 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9. 22(1). pp.61-70.
9. 張效霞, 王振國. 五臟配五行原理溯源. 江西中醫學院學報. 2008. 20(3). pp.4-6.
10. 田樹仁, 馬潤娣. 從劉向父子五臟配五行觀談『黃帝內經』. 1998. 18(3). pp.138-139.
11. 田樹仁. 兩漢改制與心屬火說的演變. 中國醫藥學報. 1989. 4(8). pp.52-55.
12. 田樹仁, 王建中. 『靈樞』、『素問』并非『黃帝內經』: 兼論『靈樞』、『素問』成書于東漢. 中華醫史雜誌. 1991. 21(3). pp.145-149.
13. 曾高峰, 吳彌漫. 從『史記』倉公傳考察漢初診法水平. 遼寧中醫雜誌. 2006. 33(3). p.288.
14. 賀衛國. 談談『素問』和『靈樞』的成書. 國醫論壇. 2006. 21(1). pp.37-41.
15. 邢玉瑞. 五行配五臟研究. 山西中醫學院學報. 2004. 5(4). pp.1-4.

<단행본>

1. 加納喜光 著. 김교빈, 이현구, 박석준, 황희경, 조남호 譯. 중국의학과 철학. 서울. 麗江出版社. 1991. pp.194-195.
2. 司馬遷 著. 史記. 『漢文大系』本.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2. p.133, 143, 145.
3. 余自漢, 連啓明, 李積光, 吳傳華, 程自勉, 陳元宏, 劉曉蘭, 趙國祥 著. 金基旺, 印昌植, 申丞鎬 譯. 황제내경의 기원. 서울. 一中社. 2003. pp.165-196.
4. 龍白堅 著. 白貞義, 崔一帆 譯. 黃帝內經概論. 서울. 논장. 1988. p.115.
5. 黃釗. 淺論『管子·水地』篇成文的時限. 管子研究. 濟南. 山東人民出版社. 1987. pp.42-51.
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39, 74.
7.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84. p.235.

<디지털자료>

1. 鄭東愈 著. 晝永編. 국립도서관 디지털 자료(1950년 필사본. 필사자 미상). <http://www.dibrary.net>
2. 劉安 述. 淮南子. 중국 국학망(國學網) 디지털 자료. <http://www.guoxue.com/zibu/huainanzi>